

연회장엔 울려 퍼진 《김일성장군의 노래》

1965년 4월 17일 자카르타의 인도네시아호텔에서는 성대한 국가연회가 진행되었다.

연회는 수카르노가 반둥회의 10돐 기념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인도네시아에 온 아시아,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 지도자들과 대표단들을 위하여 대통령의 명의로 차린 것이었다.

연회는 20시부터 24시까지 진행되었다.

분위기가 한창 고조되었을 무렵 연회장에서는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 선율이 장중하게 울려나왔다.

순간 장내에는 정숙이 깃들었다. 모든 참가자들이 약속이나 한듯이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르며 존경과 흠모의 시선을 모았다.

그때 중국의 주은래총리가 위대한 수령님의 손을 잡으며 《김일성장군의 노래》가 주악된다고 말씀드리었다.

그리고는 마주앉은 수카르노대통령에게 저 노래가 세계적인 위인이신 김일성동지에 대한 노래이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대통령은 이 노래는 자기도 잘 아는 노래이고 전체 인도네시아 인민이 부를 줄 아는 노래이라고 하면서 위대한 수령님께 당신께서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것처럼 이 노래도 세계적인 명곡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말씀드리었다.

그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웃으시며 과찬의 말씀이라고 겸양의 뜻을 표시하시었다.

사실 여러 나라 지도자들이 참가한 공식국가연회에서 유독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송가를 주악한다는 것은 보통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수카르노대통령은 그이에 대한 각별한 사랑과 존경의 표시로 외교의례를 초월하는 것마저 주저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날 연회에 참가한 수카르노대통령은 마음속으로 노래를 부르는 듯 주악에 맞추어 지휘자마냥 두팔을 힘있게 저었다.

연회장은 《김일성장군의 노래》 연주회로 변한 듯싶었다.

연회장에 울린 《김일성장군의 노래》, 그것은 세계가 공인하는 위대한 수령으로서 최대의 존경과 흠모를 받고 계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서만 베풀어질 수 있는 특전이였다.